북한지방의 대표적인 약초들

고려약 및 약초전시회 개최 조선약초 자원 분포도 제작

북한은 고려의학(한의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고려약 및 약초전시회'를 개최했고 내각 보건성에서는 '조선 약초자원 분포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고려약생산관리국의 고려약 자원 탐사대가 제작한 이 분포도에는 북한내 모든 지역의 약초분포 현황과 성분 및 이용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기록돼 있다.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지역에는 약 900종의 약용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약초로는 △개마고원 '장군풀'(대황) △백두산 불로초 △함남 부전령 단너삼(황기) △개성 고려인삼 △금강산 백도라지 △낭림산줄기의 만삼 △평양시 상원군의 지황 △자강도 강계의 작약 등이 꼽힌다.

'장군풀'은 명약초의 하나로 다른 약초보다 크고 웅장하다고 하여 그같이 불리는데 특히 크고 약효가 높은 개마고원의 것을 최고로 친다. 소화가 잘 안되거나 체기가 있을 때,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 잘 듣는 '영신환'은 이를 주원료로 빚어낸 알약이다. 장군풀 가루로는 건위제, 설사약도 만든다. 개마고원에서는 매년 이른 봄과 가을에 걸쳐 3~5년생 장군풀 뿌리를 수확해 다듬고 말려 제약공장에 보낸다

백두산 불로초는 약효가 뛰어나 특별히 보호, 관리되고 있다. 불로초는 '구멍버섯과'에 속하는 약용버섯으로서 '장수버섯' 또는 '만년버섯'이라고도 한다. 이 버섯에는 스테로이드 화합물 3.6%, 플라보노이드 1.5%, 배당체(配糖體) 0.2%,사포닌 2.0%, 쿠마린 0.8%, 알칼로이드 0.5%가 들어있다. 불로초는 좋은 보약제일 뿐 아니라 저혈압, 신경쇠약에 특효가 있고 간염, 신경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도 좋다.

부전령 단너삼은 일반적으로 뿌리가 길고 깃 모양의 겹잎이 나며 노란 꽃이 피는데 다른 지방의 것에 비해 크고 약효가 높다. 단너삼은 보약은 물론 이뇨제, 지한제 등의 원료로 이용된다.

개성 고려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고려인삼으로는 인삼탕, 인삼정액, 인삼주사, 인삼영양정, 인삼술 속사탕, 보약사탕과 인삼술, 삼로주, 삼백술 그리고 인삼크림, 인삼치약을 비롯한 수백 가지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른 도라지에 비해 잔수염이 많고 꽃이 흰 금강산 백도라지는 약효가 높아 '산삼의 팔촌'이라 불린다. 가래와 기침을 삭이며 냉을 없애고 원기를 돋우는 약재로 쓰인다. 금강산에서 자라는 야생 백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뒤 햇빛에 말려 인후정, 패독산, 감길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을 만든다.

낭림산 줄기에서 자생하는 만삼은 백두산, 함경산, 부전령 산줄기의 만삼에 비해 명산약초로 이름이 높다. 달걀모양의 잎이 나는 만삼은 7~8월에 종모양의 꽃이 피는데 뿌리가 굵고 크며(길이 10~30㎝) 약효가 높아 보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만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약초로 만든 '십전대보고'는 자양강장제로서 기혈부족, 현기증, 병후쇠약 등에 효력이 있고 보혈강장제인 '삼룡고'는 병후쇠약, 피로회복 등에 좋다.

평양시 상원군 지황은 다른 지역의 지황에 비해 뿌리가 굵고 길며 약효가 높아 보약으로 널리 쓰인다. 건지황으로는 쌍화탕, 십전대보고, 녹용보약, 피보약, 육미고, 육미환, 팔미환, 사물환 등의 보약을 만들어 강장제로 쓰며 숙지황으로는 각혈, 자궁출혈의 지혈제를 만든다. 생지황으로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입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효가 있는 경옥고와 부인병에 좋은 '부인토니큼'을 만든다.

강계를 중심으로 낭림 등지에서 나는 산백작약은 북한 특산물로서 약효가 대단히 높다. 강계 작약은 주로 허약체질 회복, 병후 회복 등에 쓰이며 기타 질병 전반에 사용하는 중요한 생약이다.

서울 중구에 전통약술연구소

〈황제내경〉〈동의보감〉 등 옛 한의학 서적과 선가에서 비방으로 내려오는 약술을 체계적으로 정리, 재현하는 전통약술연구소(소장 이평선)가 서울 중구 예장동에 최근 문을 열었다. 연구소에는 한약재와 열매류는 물론, 광물질과 동물 등으로 담근 전통약술 100여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약술반신욕, 황토약술찜질팩 등 약술을 이용한 건강법을 연구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평선 소장은 "약술은 마시는 것도 좋지만 반신욕, 약술황토팩 등 응용 범위가 다양해 대체의학의 하나로 각광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779-8441.

"치매 예방" 한약재 나와

뇌 기능을 증진시키고 치매 예방효과도 기대되는 한약재가 개발돼 기능성 식품으로 미국에 진출했다. 경희대 생리학교실 배현수 교수와 예한의원 최보업 원장 팀은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한의학계에선 처음으로 유전자 기법을 이용해 한약재의 뇌기능 증진효과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뇌력으로 명명된 이 처방은 음기(陰氣)와 신(腎)을 보충하는 육미지황탕에 추가 성분을 넣은 것. 연구팀은 육미지황탕이 뇌를 강화한다는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예비실험을 통해 밝혀진 구기자 등 뇌기능 활성 한약재를 가미해 실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험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흰쥐의 행동실험을 통해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미국산 은행잎 추출물및 레시틴 제제와 비교했다. 48마리의 쥐를 제제별로 4개 군으로 나눠 셔틀박스에 넣고, 기억력.학습력을 조사한 결과 뇌력이 은행잎 추출물과 레시틴제제보다 약 2배 가량의 기억력 증강효과가 있었다는 것.

둘째는 유전자기법 실험. 뇌력을 투입해 기억력이 증진된 쥐의 해마(중추신경계의 일부) 부위를 떼어내 8천4백78개의 유전자를 유전자칩에 반응시켰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와 신경퇴화를 막는 PEP-19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신경퇴화의 지표인 펜트라신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주는 등 19개 유전자가 뇌 기능 활성화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

셋째는 뇌력의 항산화(抗酸化)효과 실험. 노화방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를 손상시킨 후 세포의 재생율을 비교한 결과 뇌력투여군의 재생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최 원장은 "연구결과의 반응이 좋아 이 약제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심리학과팀과 함께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산대학 전통약재 개발과 신설

우리 고유의 전통약재인 약용식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도 이젠 전문가 시대! 마산대학은 약용식물을 비롯한 전통한약자원의 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전통약재개발과를 신설하고 주간 40명, 야간 6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전통약재분야의 인재양성에 들어갔다.

마산대학교 의령캠퍼스에 위치한 전통약재개발과는 마산시한의사회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등 전통약재개발과는 수 천년 이어오는 우리 고유의 전통약재 관련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생산, 분류, 가공, 저장, 보존 및 유통에 종사할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산 약용식물을 비롯한 전통 한약자원의 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수한 전통약재의 과학화를 통한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한약재 자원의 생산자인 약초생산농가와 소비자인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학과 개설의 뜻을 두고 있다.

전통약재개발과는 △지역특산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전문가 △가공 및 유통전문가 △한방의료기관의 보조인력 육성 △한방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의 개발과 연구인력 육성 등 특화된 영역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규 학장은 "고품위 의료인력 양성은 이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의사의 진료업무 현장에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하듯이 한의사의 진료현장에는 우리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들이 적절하게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약재개발과 학과장을 맡은 곽준수 교수는 "금년처럼 고교 졸업인력이 대학정원보다 줄어든 상황에서도 응시자 수가 모집정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 학과의 전망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재교육 없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 학과 야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한약재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입학하여 만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고.

〈입학문의:055-572-0333〉